

지역 소식통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다이옥신 '불검출'

고창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결과 주변 대기 환경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25t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스트로킹 방식으로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다이옥신 연속 시료 분석과 다이옥신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2022년 4월 5일 다이옥신과 벤조피렌을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유로핀즈의 주도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관련 기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소각 시설 주변 대기환경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많은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추 농가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홍보

고창군이 다가올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고창군 지역농협에선 오는 20일까지 고추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접수받고 있다.

고창군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67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재배시기에 맞추어 별도로 운영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전북도와 고창군에서 30%를 지원해 농가에 부담하는 보험료는 20%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저온,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고창군, 심원면 소재지·하전권역 2개지구

전북 고창군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심원면 소재지와 '하전권역' 등 2개 지구(지구당 100억 원 규모)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원면 소재지에는 맞춤형 SOC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문화복지 어촌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심원면 소재지는 고창군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읍·면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SOC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

업을 통해 으뜸 복합센터, 으뜸 문화광장 으뜸 북카페 조성, 안심거리 정비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체감하는 문화복지 활성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하전권역은 유흥공간 재생과 수익모델 다각화, 서해안권 해안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고창(하전)갯벌과 연계해 어촌살기·어촌돌봄 스테이션, 마을정주환경 개선, 체류형 다목적 체험공간 탄소중립 갯벌생태정원 조성 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촌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업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월부터 지역협의체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지역협의체 자문회의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군 관계자는 "남은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진균)는 올해 강우량 부족으로 청호저수지에서 공급되는 계화지역 농경지(2,467ha)에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계화 농경지 농업용수 급수 선제적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진균)는 올해 강우량 부족으로 청호저수지에서 공급되는 계화지역 농경지(2,467ha)에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가뭄대비 선제적 조치로는 주상천의 물을 양수해 용수간선에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대발배수로 말단의 농업용수를 재이용하는 방법이다. 청호저수지 인근 주상천에 임시 양수기 5대를 설치하여 계화용수간(펌프4대) 및 계화2용수간선(펌프1대)에 직접 농업용수를 급수하고 있다.

또한 대발배수로 말단에 임시수문을 설치하고 대발배수장을 가동하여 계화용수간선에 추가로 용수를 공급

함으로써 영농철 가뭄대비해 선제적 조치로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현재 월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추진중인 청호양수장 개보수를 20일 완공해 가동(245천m³/일)하면 기존의 펌프가 2대에서 3대로 추가, 1대가 증설되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수자원관리부 이문용 부장은 "공사에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알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지를 수 있도록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용수는 농업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농업인께서도 용수절약하며 사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친환경 쌀 사용업소 현판식' 가져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제1호 업소... 친환경 쌀 사용에 앞장서

정읍시는 지난 13일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친환경 쌀 이용급식소 차액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은 정읍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로 시민 건강증진과 생산 농가 상생 협력 및 우리시 자체 소비를 촉진하고 관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진섭 시장,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이동희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창민 정읍시친환경학교급식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읍시는 순정축협을 시작으로 친환경 유기농 쌀 사용업소 15개소에도 현판을 제작해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희 정읍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정읍시는 지난 13일 순정축협 한우명품관에서 친환경 쌀 이용급식소 차액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했다.

은 "정읍산 친환경 쌀을 우리 정읍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정읍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공약 11호 발표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지역 예술인 들의 창작 기회 확대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을 한번 더 권익현의 소확행 공약 11호로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에게 창작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지난 2년은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각종 공연이 취소되는 등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창작 제작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 활동을 강화하고자 문화재단 내 예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예술가 중점육성, 창작지원과 의견수렴, 작품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현 예비후보는 민선 7기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부안 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재선 이 되면 문화 향유를 통한 윤택한 군민의 삶을 위해 국악원 건립과, 새만금 국립미술관 등을 유치 하겠다는 포부도 약속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66억원 징수 박차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66억9,400만원(일반회계)으로 시는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 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

업 제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 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감에 대해 변호권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범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